

재보선 최대격전지 노원병 민심잡기 후끈

안철수 주민과 첫 상견례 갖고 본격 행보

김지선 예비후보등록, 허준영 출마 선언

4·24 서울 노원 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안철수 전 교수의 출마에 따라 이곳의 선거 결과는 정치 지형의 지각변동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13일 노원 병 지역에서 주민들과 첫 상견례를 갖고 지역구 다지기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안 전 교수는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상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인사

를 나눴다. 안 전 교수는 노원구청 앞에서 주민과 드리는 인사말을 통해 “새로 이사 안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노원구민 여러분, 상계동 주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노원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길이 낡았고 새롭다. 내딛는 걸음마다 설레지만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안 전 교수는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저는 상계동과 더 낫게, 더 가깝게 있겠다”며 “노원에서 서민과 중산

층을 위한 새 정치의 출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교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지원 전제조건으로 차기 대통령을 요구했다는 설에 대해선 “실익도 없는 요구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맞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13일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노원 병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인 허 전 청장은 이미 지난 2월 21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지역에서 표밭을 다져왔다. 허 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이곳에 출마를 결정한 데 대해 “지역 발전

을 위해 일꾼이 나서야지, 말꾼과 정치꾼이 득세하니 지역에 실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서울시장 출마하려다 그만두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또 그만두고, 미국으로 훌쩍 떠났다가 나타나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권력욕이 안철수식 새 정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계동 주민은 새 정치나 정치 판도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다”라며선 “주민 앞에 꿰어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무릎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 전 청장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당시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에게 패배했다.

한편, 진보정의당의 김지선 후보도 13일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마들여성학교와 북부 노점상연합회를 방문했고, 오후에는 주거복지센터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전통시장 등을 찾아 지역 주민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남편인 노회찬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반발·동정여론을 자극하는 한편 40여년 동안 노동·여성 운동을 해온 자신의 이력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지역 밀바다 표심 향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법부 수장 출신 행정부 고위직 제한

장병완 의원, 법안 발의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국무총리 등 행정부 고위직으로 임명됨으로써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13일 사법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이 행정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강창일·김동철·김영록·배기운·백재현·양승조·이목희·전병헌·조정식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를 입법·행정·사법의 3권으로 나누어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통치구조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이 행정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독일서 4000만달러 수출 협약

프레스 금형·LED 기업

광주시가 독일에서 4000만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1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타이겐베르거 에어포트호텔에서 자동차 프레스 금형과 LED 제품 관련 기업과 수출 및 협약 체결식을 했다.

지역 유망 금형 업체인 유에스디엠은 독일 파더본에 본사를 둔 국제적 자동차 부품회사인 뮐틀러사와 2013~2015년 3천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프레스 금형제조 공급 협약을 맺었다. LED 제품을 생산하는 YTEL

포토닉스사도 독일 카이저라이사와 1000만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와 광주 광산업체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운태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서남권의 대표적인 중추 도시이자 제조업이 잘 발달한 도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와 독일 간 활발한 수출거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13일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국제차과전시회(IDS)에 참가, 기업인들과 면담하고 차과 기기 제조와 차과용 임플란트 분야 등의 수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4000만달러 규모의 자동차 금형 및 LED 제품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광주시 김정훈 투자유치지원관, KOTRA 유럽지역본부 정중태 본부장, 뮐틀러사 알베르트 마티네즈 구매부장, 강운태 광주시장, 카이저라이사 디에트마 랑에 대표, (주)에스디엠 조철연 대표, YTEL 포토닉스사 채명수 이사. <광주시 제공>

U대회 체육관 내일 설계심사

광주시의회·시민단체, 공정·투명 입찰 촉구

“기술력 잘 따져야”

광주체육시설의 ‘랜드마크’로 이어질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다목적체육관 설계심사가 오는 15일 열린다.

광주시의회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고 나선데다 시민단체도 입찰 상황을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건설업계는 물론 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광

주시청에서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U대회 다목적체육관 기본설계 기술심의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심사가 열린다. 이날 심사에서는 설계심사 60%, 가격심사 40%를 반영해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이번 입찰은 지역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중앙과 지방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진흥기업(42%) 컨소시엄에 참여한 효성(10%)은 중앙업체고, 고명건

설(15%)·태호(18%)·상경종합건설(15%)은 지역업체다. 반면 호반건설(30%) 컨소시엄에 참여한 남광건설(25%), 중흥엔지니어링(25%), 모아종합건설(10%), 남경종합건설(10%)은 모두 지역업체다.

U대회 수명장(남양건설 컨소시엄)에 이어 지역업체가 연이어 U대회 체육관 공사를 수주하느냐, 중앙 건설업체가 지역 대형 공사의 물꼬를 트느냐도 관심사다.

U대회 다목적체육관 입찰 업체 선

정을 앞두고 특정업체가 유리할 것이란 설이 끊임없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이 아닌 건축 기술력을 평가하는 설계수준에 심사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보현)는 13일 “그동안 광주시의 입찰행정과 관련한 부정·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혁신적인 입찰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김보현·김영남·전주연·조영복 의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설계평가 회의에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입찰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심의의 전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건위는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계획과 심의결과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입찰안내서, 입찰참여업체, 심의일정 등 심의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완료한 뒤 낙찰자, 심의결과, 공사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와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건설업체 항응 전남개발공사 간부 2명 중징계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와 향응 등을 접대 받은 전남개발공사 간부들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개발공사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 경도사업단장 김모씨에 대해 징계 2개월, 경도사업단 전 개발팀장 고모씨에게 징계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단장 등은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경도개발사업 시공사인 S건설 관계자로부터 골프와 술자리 등 3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행정안전부 공직 감찰에서 적발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방 정가

광주 40당, 대형마트 추가 입점 반대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광주 운암동과 첨단·첨단2지구의 대형마트 추가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정당은 “광주는 인구대비 대형마트 숫자가 과포화 상태”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추가 입점을 저지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정당은 “경제민주화가 국민의 공감을 얻으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며 “독점이 아닌 경쟁과 조화, 무한 경쟁이 아닌 협동은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상배 도의원 ‘약취방지 조례안’ 발의

김상배 전남도 의원(민주·여수)은 13일 ‘약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과 약취방지사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업지역의 경우 측정시 희석배수를 배출구 500배 이하, 부지경계선은 15배 이하로 하고, 기타지역은 배출구 300배 이하, 부지경계선은 10배 이하로 하여 각각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정약취물질도 암모니아 등 22종에 대하여 공업지역에 한해 배출허용 기준을 따로 정하였으며, 약취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밀)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급구!

(매수자 대기) 2억~10억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야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상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앙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 ☆.0피트 밀집지역 병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 ☆.지하철 운천역 인근 광종간 대로변 사육부지 150평 내외

♣대지,전,답,임야

- ☆.광안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매매가 평당9만원
-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부지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 ☆.광안구 송촌동 자연부지 2,988㎡(904평) 매매가 평당60만원

♣전원주택지

- ☆.광안구 오운동97번 시내버스중점 전원주택지(전원주택용)전, 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찰분과 얼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벨 011-602-2632
광주영천 신봉정, 대인동 신봉정, 대인동

급매 상가/원룸

-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원세794만
- ▶ 1층 편의점 1개
- ▶ 2층 21개, 투룸 47개
- ▶ 토지면적 : 330.58㎡ (100p)
- ▶ 건축면적 : 737.19㎡ (223p)
- ▶ 매매가 6억 8천(용지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용지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 3억9천9백만 대출이자 5.7% 월 116만원 공제하면 월순 수익 678만원 연수익률 20% 편익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동아공인중개사 011-647-4747

유동화자산매각

- ▶ 순천시 조례동 587-4의 2필지
- ▶ 에코그리드 호텔
- ▶ 토지2008㎡(607평)
- ▶ 건물22759㎡(6,684평)
- ▶ 감가액 450억4천
- ▶ 매매가격 220억

문의 : 011-684-3886